

장성군 출산율 1.68명 '기적'...지방 소멸 방파제 '톡톡'

통계청 작년 지표 전국 2위 쾌거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책 '주요'
청년 자립기반·미래농업 확충 등

장성군이 전국에서 두번째로 아이 울음소리가 많이 울려 퍼지며 '출산·보육 메카'로 우뚝 섰다. 5일 장성군에 따르면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출생·사망 통계'에서 군의 합계출산율은 1.68명을 기록하며 당당히 전국 2위에 올랐다. (사진) 합계출산율은 가임기간(15~49세)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지역의 사회·경제적 정주 여건을 가늠하는 가장 확실한 바로미터다. 앞서 장성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던 지난 2022년 0.83명까지 곤두박질했던 수치는 2023년 1.15명으로 반등했고, 2024년에 1.34명을 거쳐 지난해 1.68명까지 상승하며 거침없는 도약세를 과시했다. 이 같은 경이로운 상승 곡선의 이면에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군정 최우선 과제로 삼은 전폭적인 행·재정적 투자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다. 군은 민선 8기 들어 신생아 양육비를 대대적으로 늘렸다. 첫째 400만원, 둘째 600만원, 셋째 8

00만원, 넷째 이상 1천만원으로 파격 상향하며 부모들의 초기 양육 부담을 덜어냈다. 임신부 케어를 위해 스마트 기기를 활용, 고위험 임신부의 건강을 챙기는 '스마트 맘케어'는 물론, 임신 12주 이상 임신부에게 가사도우미 비

용을 대는 '맘든든 가사케어', 신혼부부 건강 검진까지 빈틈없는 그물망 복지를 연중 가동 중이다. 초·중·고교 입학 축하금과 교복비,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학기당 최대 200만원의 대학생 등

록급 지원에 이어, 이달부터는 (재)장성장학회를 통해 대학생 주거비도 지원해 교육비 걱정 없는 '명품 교육 도시'의 입지를 단단히 굳혔다. 나아가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뿌리내릴 수 있는 자립 기반 확충에 사활을 걸었다. 지난달 27일 청년 전초기지인 '아우름' 센터를 개관한데 이어 오는 4월 외식업 창업을 이끌 '장성미식산업진흥원'을 출범시킨다. 또한 삼서·삼계면 일원 13.1ha 부지에 청년 농업을 위한 아열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조성해 미래 농업의 블루오션을 열어 나갈 계획이다. 김한중 군수는 "첨단3지구 주거단지 임주를 시작으로 장성 인구는 대전환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인구 6만 시대, 합계출산율 1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성으로 모여드는 인구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살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과 지원에 주력하겠으며, 지역 발전의 동력을 확보해 행복이 성장하는 장성을 완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성=김문태 기자

보성군, 고향기부 답례품 다양화·업체 판로 넓힌다

郡, 오는 18일까지 공급업체 모집
농특산물·관광·체험 등 6개 분야
녹돈·꼬막 등 102개 품목 차별화

리기 위해 2026년도 공급업체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모 접수 기한은 오는 18일까지며, 모집 분야는 농특산물, 가공식품, 공예품, 생활용품, 관광·체험 서비스 등 총 6개 분야다. 이를 통해 군은 보성의 지역성을 살린 경쟁력 있는 상품을 폭넓게 발굴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보성군에 사업장을 두고 해당 품목의 생산과 제조, 유통할 공급이 가능한 업체며, 참여를 희망하는 이는 보성군 인구정책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그동안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역 자원을 적극 홍보해 왔다. 현재 대표 답례품으로

는 녹돈, 키위, 꼬막 등 특산물을 비롯해 제암산 자연유양림 숙박 할인권, 울포해수욕장센터 이용권 등 102개의 다양한 품목을 제공하고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지역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답례품을 지속 발굴해 기부자의 만족도를 높여겠다"며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 업체의 판로 확대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를 제외 한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액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보성=임병연 기자



고흥분청문화박물관, '고흥의 보물, 함께 잇다' 개막

7월5일까지 기증품 100여점 선봬
고흥분청문화박물관이 지역 기증자들의 자발적인 나눔으로 수집된 유물을 선보이는 특별 기획전시를 마련했다. 5일 고흥군에 따르면 전남 박물관 1층 로비에서 공영민 군수, 김준근 고흥군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기증자와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2024년 기증특별전-고흥의 보물, 함께 잇다' 개막식이 열렸다. (사진) 오는 7월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31명의 기증자가 내놓은 총 1천200점의 자료 중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100여점을 엄선해 선보인다. 전시물은 조선시대 유학자의 편지와 문서, 일제강점기 근현대 역사 기록물, 주민들의 생활 자료 등으로 구성된 고흥의 확립적 전통과 향일 역사, 생활사를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다.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나만의 타임캡슐 만들기 체험과 전문 해설사가 동행하는 정기 전시 해설(하루 3회)도 병행해 운영된다. 공영민 군수는 "이번 전시는 군민 한분 한분의 나눔이 모여 고흥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문화자산이 됐음을 보여주는 뜻깊은 자리"라며 "많은 군민께서 함께 관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성학 기자

순천대, 올해 신입생 충원율 99.9% 달성

글로벌대학30 사업 안착 결과
국립순천대학교는 5일 "2026학년도 신입생 최종 등록 마감 결과 정원 내 기준 99.9%의 자체 최고 충원율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순천대는 지난해 27일 등록 마감 결과 지난해 99.7%에 이어 2년 연속 100%에 육박하는 등록률을 기록했다.

이는 정원 외를 포함한 전체 충원율은 99.8%로 광주·전남·전북권 국립대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이 같은 성과는 학원인구 감소 속에서도 '글로벌대학30' 사업을 기반으로 한 특화 전략이 안착한 결과로 풀이된다. 대학 측은 3대 특화 분야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과 전공 선택권을 넓힌 '전공자유선택제' 도

입이 수험생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지역인재 전형 선발 비율을 41.6% 수준으로 유지하며 진학 기회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강희순 입학처장은 "2년 연속 100%에 근접한 충원율은 교육과정 혁신과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 전략이 성과로 이어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우수 인재를 선발하고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양홍렬 기자

여수시, 6월까지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세계섬박람회' 대비 정비 나서
여수시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방문객 편의를 위해 오는 6월까지 지역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에 나선다. 5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섬박람회 기간 중 국내외 방문객 증가에 대비해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6만4천여개의 주소정보시설

전반을 점검하는 선제적 조치다. 특히 행사장 주요 진입로와 관광지, 항만, 숙박시설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훼손되거나 망실된 시설물을 집중 정비해 길 찾기 혼선과 안전사고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시는 현장 전수 점검을 통해 시설물 긴급 보수와 야간 시인성 강화를 추진하고, 행사장 주변에 안내 시설이 추가로 필요한 구간을 발굴한다. /여수=김진선 기자

주소정보시스템과 연계한 데이터 현행화 작업을 병행해, 자율주행과 내비게이션 등 스마트 기술에 기반한 디지털 행정 서비스의 정확성도 한층 높일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섬박람회는 여수를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행사인 만큼 작은 안내표지 하나까지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정확한 주소체계는 방문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기초 인프라 구축 사업이므로, 철저히 정비해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담양군, 정부 '물관리 최우수기관' 선정

인프라 통한 우수율 92% 달성
담양군이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성과를 인정받았다. 5일 담양군에 따르면 최근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5개 기관이 후원한 '제3회 물 관리 심포지엄'에서 물관리 최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사진) 군은 지방상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해 총 14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과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을 통해 우수율을 92%까지 끌어올린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아울러 노후화된 신계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등 군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

하기 위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다. 군은 지난해 '2025년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점검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올해 표창을 받으며 수도행정 전반에서 우수한 역할을 입증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군민 누구나 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과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곡성군 봄철 재난·교통 안전 '행정력 집중'

산불·가축 전염병 예방 강조
곡성군이 봄철 건조기를 맞아 산불 등 재난 예방에 선제적 대응을 하는 한편, 민생 챙기기에 나선다. 5일 곡성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대동마루에서 3월 정례조회를 열고 봄철 재난 대비 체계와 주요 제감형 복지 정책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우선 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산 폐기물 소각과 입산객 증가로 대형 산불 위험이 커짐에 따라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 산림재난대응단을 주축으로 논·밭두렁 소각 금지 홍보와 현장 순찰을 늘리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 전염병 차단을 위한 방역망 유지에도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1월1일부터 시행 중인 '전 국민 무료버스'의 운영 상황과 긍정적 변화도 공유했다. 무료버스 도입 이후 농촌 지역 어르신들의 병원 진료와 전통시장 이용 등 이동 범위가 넓어지면서,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고 삶의 질 향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곡성=김영필 기자



최근 곡성군청 대동마루에서 조상래 곡성군수와 관계자 등이 정례조회를 열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곡성군 제공> 군은 향후 버스 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민 불편 사항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해당 제도가 지역 사회 교통 복지로 온전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운영 내실을 다질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경쟁을 앞두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군민들의 생활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할 수 있도록 재난 예방과 생활 밀착 행정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현장에서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 기자